

특별기고 - 최 병 현(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

부처님 연기에 모든 답이

현대사회에 구현해야 할 불교적 가치... 첫째도 둘째도 '연기'

불교교단의 이름인 승가(僧伽)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범어 상가(Sangha)의 음을 한자로 옮긴 것이며, 승가는 줄여서 승(僧)이라고도 한다. 승가는 단순히 집단이라는 의미 외에도 화합이라는 조건이 요구되었다. 승가의 의미를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하여 정의하면 화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교단은 승가의 이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승가'라고 칭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범어 상가(Sangha)라는 명칭은 불교교단만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었다. 상가라는 말의 유래는 불교교단의 명칭으로 사용되기 이전부터 집단(集團), 집합체(集合體), 조합(組合)을 의미하는 용어로 이미 사용되어 온 것이다. 부처님 당시 인도에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많은 신승의 종교가들이 사문(沙門, Śramaṇa)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여러 지방을 유세(遊說)하고 제자들을 모아 교단을 조직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종교가들은 때로 '상가의 소유자', 또는 '가나(gana)의 소유자'라고 불리었다.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는 공화정체의 국가(共和國), 그리고 상인들의 동업조합(同業組合)도 또한 상가, 또는 가나라는 명칭으로 불리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체제와 경제조직의 명칭이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종교적인 집단이나 불교교단, 그리고 정치적·경제적 조직을 막론하고 상가, 또는 가나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던 집단의 공통적인 의미는 구성원의 평등한 관계 속에서 민주적인 운영을 통하여 완전한 화합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연기설의 핵심은 화합

상가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화합을 이루는 생활원리는 무엇이었는가? 부처님께서 그러한 화합의 생활원리로서 제시한 것은 바로 연기설(緣起說)이었다. 연기설은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의 핵심내용이며, 새로 발견한 존재의 이법이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설명 내용이나 방법이 어떠한 간에 모두 연기설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따라서 연기설은 불교의 출발점이며, 모든 교설들의 사상적 이론적 근거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양하게 전개된 불교의 모든 교설들은 연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응용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연기(緣起)라는 말은 범어 뿌라따파사

무뜨빠다(pratītya-sam-utpāda)를 번역한 것이다. 연기는 '... 때문에 함께 태어남', 또는 '...을 말미암아 생김'이라는 말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풀이하면 모든 존재는 그것을 성립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이거나 조건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원인이거나 조건을 말미암아서 생성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 연기의 원리는 존재의 '관계성(關係性)', 또는 '상의성(相依性)'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존재의 관계는 상호존재일 뿐이다. 따라서 모든 존재는 전적으로 상대적인 것일 뿐이고, 절대적인 것이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서로 관계를 가지므로써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홀로 존재하는 것도 있을 수 없고, 또한 영원한 것도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존재의 실상을 불교에서는 무아(無我)이고, 무상(無常)라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용하고 실천했

#연기적 세계관이 이상적 공동체 실현

부처님이 연기법을 응용해 해결하고 한 것은 어떤 문제였는가? 부처님이 그의 전생애에 걸쳐 해결하고자 했던 것은 인생의 고(苦, dukkha)의 문제였다. 부처님은 연기의 원리에 의해 먼저 고통 발생시키는 원인을 추구한 뒤, 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 줄 수 있었다. 고의 소멸, 그것이 곧 해탈이자 열반이었다. 부처님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로부터 해탈하는 길을 가르쳤다. 부처님 당시의 불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긴다는 것이었다. 특히 전문적인 출가 수행자는 교단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오로

교단이 화합해야 비로서 '승가'

연기설 핵심인 '화합' 실천해야

표현하는 것이다. 연기의 원리에 의하면 어떠한 존재도 고유성이나 실재성은 인정될 수 없다. 결국 모든 존재는 무자성(無自性, asvabhāva)이고, 무자성이기 때문에 공(空, śūnyat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연기법은 부처님이 만든 것이 아니다. 역시 부처님 이외의 다른 어떤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나아가 신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서 만든 것도 아니다. 이것은 존재의 이법(理法)으로서 존재와 더불어 있어 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은 부처님 같은 어느 한 사람이 세상에 출현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사실과는 관계없이 존재한다. 부처님은 단지 이 법을 처음으로 발견했을 뿐이며, 그 법의 발견에 의해서 한 인간에서 부처님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이 된 뒤에도 그가 발견한 법에 의지하고, 그 법에 따라 살았다. 또한 부처님은 이 법을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가르쳤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은 이 연기법을 처음으로 발견해서 그것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생들의

지 깨달음을 목표삼아 수행해야만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에로의 길(道)'인 실천방법은 여러 가지 형태로 설하여졌으며, 또한 체계화되었다. 불교의 근본 교설인 사성제(四聖諦)와 팔정도(八正道)가 바로 그것이다.

부처님은 또한 연기의 도리를 통하여 극단에 치우친 사람들에게 중도적인 진리를 보여 주었다. 연기의 도리는 모든 존재가 생존하고 유지되는 참모습을 밝힌 것으로서, 이러한 세계관에 의하면 이것과 저것, 너와 나의 관계에서 서로가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게 된다. 모든 것은 서로서로 상의상자(相依相資)하며, 서로의 존립과 소멸의 필연적 이유가 된다. 이러한 상대주의적 세계관에 의거하여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볼 때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판단하거나 고정적 독단에 빠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자세를 지킬 수 있다. 또한 온갖 편견과 대립적인 극단에서 벗어나 조화와 화합, 협력과 공존이라는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러한 이상을 자신과 제자들로 구성

“총무원장 스님 어디 가셨나요?”

집행부 낮은 참여율 실망... 다양한 의견 개진

토론회는 조계종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불자들은 영상을 통해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올렸다.

이번 토론회에서 불자들은 부족한 참여율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집행부의 참여가 눈에 띄게 낮아 토론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됐다.

“대승바람”은 “종단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시는 분들의 저조한 참석율이 아쉽네요. 막강한 권한 행사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이런 토론회에서 의견을 개진하시고 더 나은 종단운영을 위해 많이 참석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지적했다.

“조계종도”라는 네티임의 불자도 “총무원장 스님께서는 어디 가셨네요? 총무원장 스님께서는 들어보셔야 할 말씀인데 그래야 변화가 되고 쇄신이 되고 결사에 적극 반영을 할 수 있는데 정작 총무원장 총무부장 기획실장 스님 등 집행부는 보이질 않네요 안타깝습니다”라고 밝혔다.

“시정차”도 “주제가 5대 결사인데 집행부가 빠져있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총무원 집행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싶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참여율이 낮아보니 다음 토

론회부터는 대형 포털과 제휴를 통해 불자가 아닌 일반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제안도 나왔다.

“합장”은 “사회성있는 토론 아젠다를 설정해서 다음이나 야후 같은 포털의 협찬을 받아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주세요. 내용은 좋은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좀 안타깝네요”라며 낮은 참여율을 아쉬워했다.

한편 불자들은 또 토론이 너무 불교적 가치에 집중한다며 우리사회의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불교적 방안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있게 토론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이날 주로 제기된 올바른 수행과 관련, 수행의 대중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청풍명월”은 “수행을 대중화하는 것, 쉽게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무아, 공, 불생불멸의 경지를 추구하는 대승의 가치를 너무 단순화하는 우려도 있다고 본다. 특정한 대상이나 시대에 맞는 대가설법을 불교수행이나 불교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화 하는 것에도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라고 밝혔다.

박기범 · 천진영 기자

“민족문화수호는 자승자박”

박 광 서 교수 활발발한 문화결사 필요성 지적

불교중앙박물관 관장인 흥선 스님과 박광서 서강대 교수는 시대와 대중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불교로 거듭나기 위해 문화결사를 통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흥선 스님은 “문화결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중에게 확산시키고 부처님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다. 출가대중이 불교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사부대중에게 확산시키려는 것이 문화결사다”라고 밝혔다.

박광서 교수는 “불교문화는 활발발하고 유연하다. 그런데 민족문화수호라는 이름으로 문화재, 문화유산에 한정시키는 것은 자승자박이다. 감성시대에 맞는 불교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한다”

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불교계에 들어온 사람을 키우려는 것이 아니라 불교로 올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공립학교에서 '불교'가 아닌 '종교'를 가르치도록 한다면 불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박희택 불교아카데미 원장은 5대 결사에 교육 결사가 빠진 점을 지적했다. 박 원장은 “교육결사는 왜 없는가? 승가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다 교육의 문제로 귀결된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기범 기자

용성대선사의 사상을 이어 통일로 미래로

제 7회 통일음악예술제

Since 2005 경기북부음악예술제

“제 7회 경기북부 통일음악예술제에 초대합니다”

불기 2555(2011)년 4월 16일 (토요일)
봉축법요식 오후 6시 / 음악예술제 오후 7시
장소 : 임진각 평화누리

불교의 전통문화와 현대음악이 선사하는 통일음악예술제

경기북부불교연합창단의 축제 한마당인 “제7회 경기북부 통일 음악 예술제”가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용성대선사의 사상을 이어 통일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경기북부 11개 시.군의 연합창단이 주현미, 마야, 최소리의 아리랑파티, 불꽃놀이 등과 함께 공연합니다. 민족 33인중 한분인 용성 대선사의 발자취가 어린 보광사, 도솔암이 있는 파주에서의 통일 음악 예술제에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5(2011)년 4월 16일

제 7회 경기북부통일음악예술제
봉행위원장 경기북부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인 목 함장
집행위원장 파주시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초 격 합장

행사 프로그램

1부. 법 요 식 [오후 6시]
[총 명] 자승 큰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개최기 이상식] 봉행위원장 (인목스님)
 • 파주시 불교 사암 연합회 회장 (초격스님) • 파주시장 (이인재)
 • 포천시시장 (정정원) • 포천시 불교 사암연합회 회장 (장산스님)

2부. 통일 음악 예술제 [오후 7시]
“백용성 대중사 일대기 및 소리로 하나된 통일의 노래”
 • 협연: 메디치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 • MC : 최영미 (방송인, 전 KBS 9시뉴스 앵커)
 <제1막> 탄생과 출가 지휘 이재욱 반주 무진해 (남양주 / 양평 / 포천 연합창단)
 <제2막> 수행과 깨달음 지휘 안병길 반주 홍순연 (의정부 / 양주 / 동두천 연합창단)
 <제3막> 3.1운동과 옥중발원 지휘 오승희 반주 강수진 (파주 / 고양 연합창단)
 <제4막> 대각사상 이어 통일의 하나된 노래를 지휘 오승희 반주 강수진 (경기북부 불교연합 창단)

3부. 축하공연 [오후 8시] • 최소리의 아리랑 파티 (타악퍼포먼스) / 주현미 / 마야 / 불꽃놀이

주 최 | 경기북부불교사암연합회
주 관 | 파주시불교사암연합회 / 파주시 / 재대한불교조계종대각회
행사문의 | 경기북부불교사암연합회 사무국 전화)031-948-7700
 ※의전상 행사 참여여부를 4월 10일(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임진각:평화누리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481-1 경기평화센터
 TEL 031-953-4854 / FAX 031-953-4857

협찬 | 고양시, 구리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사암연합회
 • 대한 불교 조계종 총무원 • 한국불교대학교 • 대한불교진흥원 • 대한불교교육진흥원 • 문화체육관광부 • 세계속의 경기도
 • 대한민민 • 양주 • 가평 • 양평 • 양주 • 의정부 • 포천 • 가평 • 양평 • 연천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